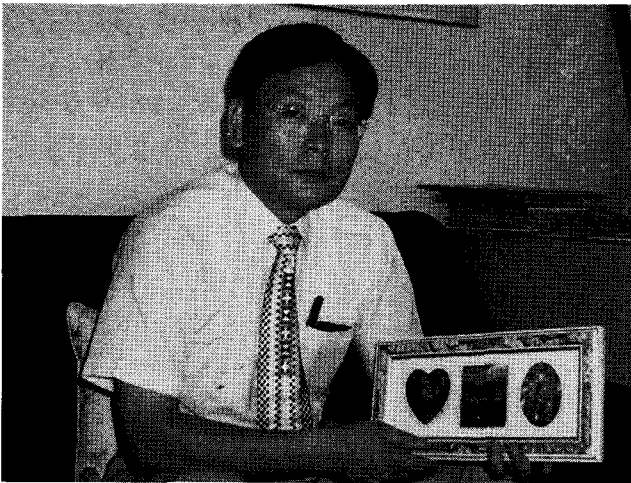


환경사랑 바탕으로 스티로폼 재활용 적극 노력

환경폐기물 연구와 깊은 인연

최 주 섭 /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상무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최주섭 상무

EPS재활용협회는 창립된지 불과 3년 만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더욱이 95년 5월 의욕에 찬 최주섭 상무를 영입하고 홍보강화, 재활용사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최 상무는 EPS재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업계와 정부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협회에 입사하여 그간 환경과 폐기물

에 관련한 그의 화려한 경력을 바탕으로 유감없이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80년 환경부 개청 당시부터 줄곧 폐기물관련 업무를 하다 폐기물관리과장을 지내기도 했던 최 상무는 그후 현대사회경제연구소 환경연구팀장을 취임했다.

현대사회경제연구소는 현대그룹의 경제, 경영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환경연구팀은 국제환경규제에 따른 민간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고 있는 곳이다. 특히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대응하는 방법, 즉 국

제환경 규제강화에 따른 현대전자의 환경친화 경영 방안 등을 수행하기도 했다.

“협회의 기능이 과거의 협회 기능에서 탈바꿈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형식적인 단체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업계의 의견을 정책기관에 전달하고 정책기관의 의견을 업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의 환경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라고 밝히

며 스티로폴이 재활용이 힘들다는 목소리가 커 작년 협회는 재활용하는데 적극 힘써 25%의 재활용률을 기록했으며 재활용품목으로 지정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협회는 금년 상반기 만9천육백톤 중 6천55톤이 재활용되어 30% 재활용률을 기록했으며 2천년에는 5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재활용률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지방자치체로 분리, 수거가 잘 이루어졌으며 수거된 것으로 액자 등의 재생품목으로 66.5%, 건축자재로 22%, 용제를 섞은 접착제로 12.3%, 적용시켰으며 일부 수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생제품이라는데 일반소비자들이 사용을 선호하지 않아 외국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에너지로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최 상무는 정부가 재활용 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 자금유자가 고작이지만 재활용 제품이 신제품과 경쟁시 가격면에서 불리해 업체가 어려움을 받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이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환경부에서 재활용과 폐기물 감량을 위한 여러가지 법안들을 발표해 왔는데 업계와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것이라 모순된 내용이 많아 업계의 지탄을 받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사용자로부터 재생업자에게 도착하는 순간까지 깨끗한 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는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회수, 분리를 충실히 하며 재생업자

들은 양질의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라고 밝히는 최 상무는 지금은 이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라고 안타까워 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부터 수거차량 2대를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 수거를 보조하고 각 구청마다 감용기 1대당 20%까지 자금을 지원해 금년 상반기까지 2억원정도를 투자했다. 이외에 재생업체들에게 선진 재활용 기술 정보 제공, 대형농산물 시장의 스티로폴 재활용 시설 대체시 지원, 재생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의 수출상 어려움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플라스틱이 없다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을 것입니다. 최근 EPS를 대체하는 종이 완충재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아직 스티로폴에 비해 모든 면이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포장의 중요성은 보관, 수송상 용이한 것이 우선이므로 업체들도 대체를 선득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최 상무는 “환경사랑이라는 매체발간으로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홍보를 통해 스티로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데 노력할 것이다”라며 말을 맺었다.

서울대학교 농대를 졸업하고 환경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최 상무는 집에서도 가족들에게 환경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책자를 발간하는 등 어느덧 환경론자가 되어 버렸다. ☐

이선하 기자